

# 살아 있을 때 꼭 이 마음도리를 배워야 됩니다

## 25면에서 계속

이들하고 학교생활하다 보니 상대적인 공평함에 마음을 상하게 되고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아이들을 볼 때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칠성을 믿어야 수명과 재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믿고 들어가야 아이들도 저도 이 어려운 세상에서 근본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 여러분이 무슨 가난하다 안된다 하고 울고 짜고 그러지 말고 울 힘이 있으면 힘을 내서 생각을 잘해 보세요. 알고 있는 고놈이 일체 만법을 활용할 수 있는 해결사입니다. 그러나 고놈에게 모든 걸, 용광로에다 넣듯이 자동적으로 넣어 버리세요. 자동적인 기계가 스스로에게 스스로 주어져 있으니까 거기다 다 맡겨 놓아라 이겁니다. 그까짓 것 뭐, 죽어도 그 속에 있을 거고 살아도 그 속에 있을 거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팔족이 아무리 굶어도 그 속에 있는 거지 팔족이 어디 갑니까? 그러나 그저 죽어도 그 속에 들어갈 거고, 살아도 그 속에 모두 있을 거니까 거기다 다 놓으시고 한생각 좋게 해서 딱 쳐들어 놓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서 생산이 돼서 자동적으로 현실로 나와요. 우리가 현실을 넣으면 새 물건으로 생산이 돼서 나오면서 다시 용도대로 종류별로 이름을 지어 가지고 다시 나오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50%의 행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있고서야 그 행적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없는데 무슨 우주가 있고 상대가 있었습니까? 부처가 어딴습니까? 나라는 부처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겁니다. 나 빼놓곤 아무것도 없어요. 허공에다 왜 빛이냐? 이음에다 왜 빛이냐? 아니, 공이 비었습니까, 빛이? 이게 주체념은 소리 같지만요, 주체념은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 자성을 그렇게 전부 갖춰 가지고 있고 있고 원력자, 해결사를 나한테 두고도 왜 탄 이름을 쳐다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거기서 얻어먹으려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남 날 때 나고 남 생길 때 생겼고 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윤회에 끄달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길 없는 길을 걸을 줄 알아야 하고, 발 없는 발로 디딜 줄 알아야 하고, 손 없는 손으로써 만 가지 철보를 다룰 줄 알아야 하고, 그래야 윤회

에 끄달리지 않고 여러분한테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성을 믿어야 이겁니다. 그 자성을 찾으려고만 애를 쓰지 말고 그냥 좀 믿으란 말입니다. 네? 찾기는 어디서 찾습니까? 자기한테 자리하고 그냥 그냥 있는데요. 좀 믿어 봐라 이겁니다. 불 심지처럼 물러서지 말고 믿는다면 거기다가 놓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믿는다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 몸뚱이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네 소용돌이 속에 내가 가루를 만 들어서 그냥 버리겠다.' 이런 패기가 아주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죽으면 살아도 죽고 사는 게 없는데 왜 살 수가 없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자성불(自性佛)이란 바로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그랬구나.' 하는 것을 진실하게 믿으세요. 좀 믿고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놓고 생각을 좋게 해라 이겁니다. 안된다 하더라도 '안되는 게 어딴냐? 안되게 한 것도 거기서 한 거고 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한 건데 이번에는 되게 하겠지.' 하구요. 무엇이 되고 싶다면 되게 하는 것도 안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니까 자기 되고 싶어 하는 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해 달라 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러나 더 잘 알고 있는 놈이, 자기가 지금 되고 싶어 하는 거를 자성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다시 돌아서 회전이 돼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나 '되게 해 주시오.' 이럴 필요도 없죠. 알고 있으니까. 말로는 '난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아이, 고것 좀 가졌으면...' 이러거든요. '그렇지 않아.' 하면서도 '고거 잘 생겼는데.' 요리거든요. 그것이 바로 자성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고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자성이 알고 있죠. 그러나 믿지 못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해서, 아무리 죽을 꿈을 꿔도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어허, 죽는 것 사는 것이 따로 있는데 어찌 죽을 게 있소?' '어, 좋은 일 생기겠구먼.' '승진하겠구먼.' 용도에 따라서 딱 생각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밀어 던져 버리세요.

내가 이런 말 하는 건 여러분의 아픔과 내 아픔이 돌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마음 하나 돌리면

모든 것이 그냥, 이 몸뚱이 속의 모든 것이 회전을 해 줄 테니까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 자성을 믿고 놓을 수 있고 생각을 잘해서 놓을 수 있다면, 회전이 돼서 50%의 안 보이는 데서 50%의 보이는 데로 나온다면 우리는 사람답고 흥겹게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대책 없이 악한 인연을 만났을 때는**  
**문)** 살다 보니 별별 인연을 다 만나게 되는데 주위에서 정말 대책 없이 악한 인연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 이렇게 하세요. 이게 전력이 있는데 이 가설만 만들어 놓고 전력이 없으면 불 안 들어오죠? 그런데 이 세상만사가 전부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다 가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을 켜는데 그쪽에 어떻게 불이 안 들어왔느냐 이겁니다. 나하고 벌써 근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 주인공에 탁

보고 한나절 울었대요. 어때요? 그래서 앞뒤 터진 대피리 소리는 우주 법계를 두루 하더라도 좀 그렇게 무조건 당신을 믿고 당신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모든 것을 그저 용도에 따라서 오는 대로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물러서지 않는 마음, 그거라면 공부할 수 있겠죠.

좌선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이 편안해야 좌선이고, 망상이라는 것도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고 참나를 발견하게 이끌어 주는 바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망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망상이라고 하는 개념 그것도 놔 버려야죠. 아,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분별이 없으면 목적인데 목적이 돼도 아니 되니까 분별을 하더라도 분별을 분별이라고 하지 말고 망상을 망상이라고 하지 말고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만이 열반으로 직결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렵고 괴롭게 사시지 말고 편안하게 사시라 이거죠. 사람이 한번 이 세상에 났다가 한번 옷 벗기는 마찬가지로 옷 벗기 전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좀 알고나 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당신을 믿고 지켜볼 수 있는 마음  
그저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물러서지 않는 마음, 그거라면 공부할 수 있겠죠

말겨 놓고 그냥 지켜보고 있어 봐요. 그리고 만 나걸량 부드럽게 말해 줘요. 뭐, 이 몸뚱이 가지고 얼마나 삽니까? 모두 가지고 갈 건가요? 내 몸뚱이도 버릴 텐데 뭐 가지고 갈 게 있다고 그렇게 아웅다웅 그래야만 합니까? 편안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걸, 재산을 하늘땅만큼 가졌다 하더라도 내 이 진실한 마음하고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게 부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주인공, 참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즉 말하자면 주인공에 다 이렇게 맡겨 놓고 그렇게 '우리가 한마음으로 그저 규합해서 얼굴 붉히지 않고 살게 해 주는 것도 너 아냐?' 이 영원한 친구야! 이렇게, '한마음 친구야!' 이래도 좋아요.

이 공부 하는 사람은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선이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선이 되지.' 이런 생각조차도 그냥 다 놓으세요. 행이 중요하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행하다 보면 그 만 가지, 자기 나무에서 익은 실과가, 한 실과가 만 가지 맛을 낼 때 그 즐거움이란 말로 못해서 하늘을 보고 한나절을 웃고 땅을

**어디로 도망가야 살지?**  
**문)** 초등학교에 다니는 제 아들 놈이 하루는 TV를 유심히 보더니 '엄마,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제주도까지도 날아간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은 했지만 내심 불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스님,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겠지요?

**답)** 그걸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달리 나투어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지혜로써 닦지는 대로 하는 것을 알아야지 어떻게 내가 이걸 이렇다 저런 저렇다 하고 이 루종차 가르칩니까?

우리는 지금도 가난한 전세방에서, 그나마도 반쪽으로 나누어준 이 전세방에서 참 살기가 극단하다고 봅니다. 살기가 극단한 게 아니라 겁난다 이겁니다. 왜 겁나느냐. 나는 6·25를 지내 봤으니까 압니다. 지금은요, 6·25처럼 그렇게만 싸운대도 또 겁 안 납니다. 달아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공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그마한 새우 싸

움이 만약에 고래 싸움에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공부 좀 안됐다 하더라도 한생각으로서 급하면 급한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이건 이렇게 되어 있어', '지금 우리 방식을 튼튼히 해야 되겠다.', '천만에! 여기에는 너희들이 손 못 댄다!' 라는 마음으로 나서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작으나 크나 '이건 못한다.' 하는 악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금강자성은 약하지 않은 겁니다. 모든 자성은 한데 합쳐지듯이 우리는 조지입니다. 지금 지구 안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조지체입니다. 한 그릇 안에서 우리는 한 살림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이 자체가 큰 살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살림을 하는 데는 한생각이, 그 생각이 아주 필요합니다. 만약에 어떠한 머저리 같은 문제가 일어난다면 모두가 한생각, 지혜를 이룬 때 싸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하, 저 사람네들은 안하무인이니까 저 사람네들의 주장심, 즉 말하자면 금강자성이 있는 것을 훌쩍 여기다 붙여 버리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어느 사람이 아주 유망하다 할 때는 금강석을 그쪽에다가 붙여 주고요. 그쪽 자석에다 붙여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람 백 명의 능력보다도 한생각이 커지게 됩니다. 만약에 열 사람의 능력을 거기다 보충해 준다면, 바로 금강자성의 그 능력에 투입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기울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깨닫는 데만 역점을 두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가정이라는 조그마한 데의 문제를 놓고 검토하고 실험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생긴다 할 때 이것을 자석에다 탁 놓는단 말입니다. 놓으면 이 자석은 자기의 근본에서 나오는 분신이라서 에너지처럼 돌아다니며 다 해결을 합니다. 무에서는 무대로 해결을 하고 유에서는 유대로 부지런하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시뮬레이션 '됐다'입니다. 그렇게 걸리지 않고 능히 한생각에 우주가 들릴 수 있다면, 또 한생각에 우주를 덮을 수 있고 돌릴 수 있다면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딴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 공부를 하신다면 한생각에 그 모든 걸 아주 자재력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동적이고도 지혜적이고도 여러분의 그 불성의 능력을 다 같이 한주먹에 쥐고 그 한생각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www.buddhashopping.com

## 동진기획 · 붓다쇼핑

☎ (051) 515-8888 대량구입시 전화주시요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051) 515-2988, 555-1087, 508-9377~8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FAX (051) 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 불심의 발길이 머무는 곳,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삼베 삼재품이

**@ 700원**  
(100개이상)

한지 삼재품이

**@ 700원**  
(100개이상)

※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카탈로그가 필요한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

##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뻐)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뻐) 6cm]

# 기반

###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신체 좌·우 균형을 빠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요번호 02)2004-8216  
☎ 053-01-28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등록증, 인쇄사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경면주삼재부적 9×20cm (100매) @ 5,000원	공 단 등 8cm 1 BOX 24개 / 등지름 24cm 할인가 @ 3,000원 (96개이상)	신형바림 등 8cm 1 BOX 24개 / 등지름 24cm 할인가 @ 3,000원 (96개이상)	비닐 만일 등 (특) 1 BOX 100개 / 등지름 30cm 할인가 170,000원	집계PVC등표 / 칼라등표 (100매 포장) @ 20,000원/ @ 6,000원
입춘 대 길 (大/小) 할인가 @ 大 3,000원 (7.2×28.5cm) @ 小 2,500원 (5×19.5cm)	한지 입춘대길세트 100조 (大/2도) 할인가 @ 大 12,000원 (10×43cm) @ 2도 10,000원 (7×30cm)	신년맞이기도부 할인가 @ 800원 (100개이상)	음양오행만제품이 할인가 @ 800원 (100개이상)	